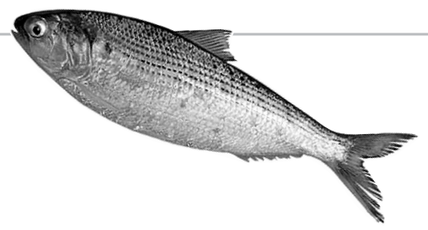


‘집’ 나간 가을 전어

수온 높아 흉년…어획량 크게 줄어 산지 가격 2배 올라

14년 광양 전어축제, 물량 부족해 축제명칭서 전어 삭제

전남지역 전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어획량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전어잡이 어선들이 수매가가 높은 지역에 물량을 집중시키면서 전어품귀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결국 전어를 주제로 축제를 치르던 광양시는 14년간 유지했던 축제 명칭에서 아예 ‘전어’를 삭제해버렸다.

광양시는 23일 “지난 1999년 시작된 섬진강전어축제의 명칭을 올해부터 ‘섬진강문화축제’로 변경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시즌마다 전어가 부족해 경남과 전북에서 전어를 들여와 축제를 치렀지만,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축제 명칭을 바꿔버린 것이다.

현재 광양의 전어잡이 어선은 30여척에, 어획량은 70여t 정도로, 지난 1985년 어선 200여척, 어획량 200여t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일각에서는 광양제철 건립 이후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광양 등 전남지역 전어 어획량이 줄면서 비교적 싸게 맛 봤던 전어 회무침, 전어구이 등도 광주시내 식당에서 1.5배 이상 오르고 있다. 1kg 산지가격도 추석 전 2만700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1만5000원까지 내렸으나 평상시 가격(5000~8000원)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전어철임에도 불구하고 낮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도내 수온이 높았던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어획량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감소세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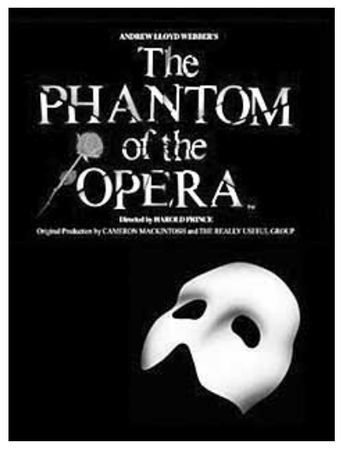
섬진강문화축제위원회 측은 전어의 어획량이 20% 정도 감소하고 있으며, 축제를 치를 만큼 전어 어획량이 충분치 못해 축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휘 축제위원장은 “전어 인기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전어 어선들이 비싸게 받는 곳으로 물량을 집중시키다 보니 일부지역에서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어가 아닌 지역 문화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 온도 상승 영향으로 전남지역에서 갈치, 오징어, 전갱이 등 난류성 어종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어업 생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3만6000t으로 전년 동기(36만8000t)보다 8000t(2.1%) 증가했다. 특히 연안 수온이 지난해보다 높아짐에 따라 살오징어(+38.7%), 갈치(+10.1%), 전갱이류(+77.5%) 등 난류성 어종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라이온 킹’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라이언킹’ 6조원 벌었다

세계 엔터테인먼트 분야 역대 흥행 1위…2위 ‘오페라의 유령’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 ’라이언킹’이 전세계에서 62억 달러(6조4600억원)의 수익을 올려 엔터테인먼트 분야 역대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웠다.

라이언킹은 브로드웨이의 경쟁작인 ’오페라의 유령’이 거둔 수익 60억 달러를 추월하면서 1위로 등극했다.

라이언킹의 수익은 영화를 포함한 모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작품들이 거둔 흥행 성적을 가뿐히 넘어서는 것이다.

’타이타닉’은 물론 ’해리포터’ 시리즈와 ’스타워즈’ 시리즈 단일 작품들의 흥행 성적도 라이언킹에는 비교할 바 못 된다. 영화사상 최대의 흥행작은 28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아바타’였다.

라이언킹은 세계 각지 티켓 판매 수익만을 합산한 것으로, 원작 애니메이션의 미국 흥행성적 4억2300만 달러나 광고 포스터 등 각종 상품 판매 실적은 제외한 것이다.

라이언킹은 1997년 5월 브로드웨이에 첫선을 보인 이후 17년간 모두 750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현재도 뉴욕은 물론 런던, 도쿄, 라스베이거스, 함부르크에서 공연되고 있다.

라이언킹은 지난해 브로드웨이에서 최초로 10억달러를 벌어들이면서 흥행 1위를 기록했고 올해도 경쟁작들이 티켓을 수백 달러에 판매하는 고가 전략을 취하고 있음에도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다.

디즈니연극프로덕션의 토머스 슈메이커 사장 겸 제작자는 22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운데 대해 “감회를 갖지 않기가 어렵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1위 자리를 내준 ’오페라의 유령’ 제작자 캐머런 매킨토시는 라이언킹이 ’브로드웨이의 자존심’이라고 축하했다.

’오페라의 유령’은 비록 흥행기록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안게 됐지만 1986년 런던에서 초연된 이후 최장기 공연을 계속하면서 전세계에서 1억4000만명의 관중을 동원한 대기록을 지키고 있다.

라이언킹이 롱런에 성공한 것은 원작 애니메이션의 지명도, 이해하기 쉬운 줄거리, 가족 친화적인 테마, 유명 스타에 의존하지 않은 화려한 볼거리라는 장점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한국, 지난해 하루 40명 자살

10~30대 사망원인 1위…OECD 최고 수준

감소세를 보였던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하루 평균 약 40명에 달한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사망원인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8.5명…OECD 최고 수준**=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만4427명으로 1년 전보다 267명(1.9%) 늘었다. 하루 39.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도 28.5명으로 전년대비 0.4명(1.5%) 증가했다. 자살 사망률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6.0명(26.5%) 늘어났다.

2003년 22.6명이었던 자살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31.0명, 2010년 31.2명, 2011년 31.7명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2012년 28.1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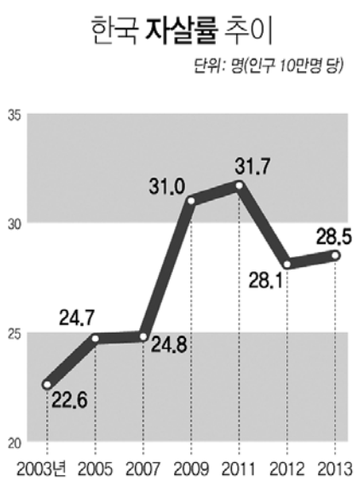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 자살률은 12.1명으로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지난해 자살률을 성별로 분석하면 남자 자살률은 39.8명으로 여자 17.3명보다 2.3배가량 높았다. 자살은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로 꼽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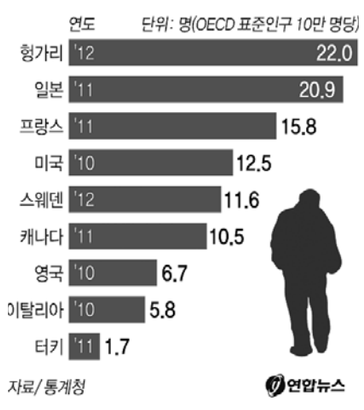
◇**지난해 사망자 7년만에 감소…알코올로 하루 12명 이상 사망**=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26만6257명으로 전년보다 964명(0.4%) 감소했다. 연간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4476명(1일 평균 12.3명)으로 전년보다 1.6% 줄었고 알코올 관련 사망률(인구 10만명 당)은 8.9명으로 전년보다 2.0% 감소했다.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이 사인 절반 차지…폐렴 증가**=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인 악성신생물(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은 지난해에도 전체 사인의 절반에 가까운 47.4%을 차지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149.0명으로 사망원인 중 가장 높았고, 뇌혈관 질환(50.3명), 심장 질환(50.2명)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자살(28.5명), 당뇨병(21.5명), 폐렴(21.4명), 만성하기도 질환(14.0명), 간의 질환(13.2명), 운수사고(11.9명), 고혈압성 질환(9.4명) 순이었다. /연합뉴스





서영암~무안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익산국토청, CCTV·차량 검지기 등 첨단 장비 설치

서해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영암과 무안 사이 서남해안 간선도로망에 최첨단 교통 시스템이 구축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은 23일 국도 2호선 서영암~무안 구간에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를 구축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S가 구축되면 CCTV와 차량 검지기 등을 통해 지·정체 및 사고, 공사 등의 소통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도로전광판과 홈페이지 등에 올려 도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익산국토청이 이번에 ITS시스템을 구축하는 구간은 서해안고속도로 죽림JC에서 남해고속도로 서영암IC에 이르는 국도 2호선 12.3㎞ 구간이며 CCTV 3대와 VMS(도로전광판) 1대, VDS(차량 검지기) 5대 등 총 9대의 첨단 장비가 설치된다.

익산국토청은 현재 호남지역 4차로 이상 국도 가운데 18%에 불과한 ITS 구축 비율을 오는 2020년 67%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임동률기자exian@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보물 지정

‘소조십육나한좌상’도

문화재청은 23일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木造釋迦如來三尊像·사진)’과 ‘소조십육나한좌상(塑造十六羅漢坐像)’을 보물 제1834호로,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木造觀音菩薩坐像)’을 보물 제1833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소조십육나한좌상’은 여러 존상(尊像)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1625년이라는 정확한 제작 시기와 목적, 제작자 등 불상 조성에 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 이 시기 불교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17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수연(守然)과 그의 일파가 제작한 불상으로, 16나한(羅漢)의 신통력과 특징을 생동감 있게 연출했다.

청룡사 관음보살상은 1655년 조각승 조능(祖能)이 완주 봉서사 향로전에 봉안하고자 만든 불상으로, 17세기 중엽 불상 연구에 기준이 된다. /김경인기자kki@